

아버지께 드립니다

①

10년 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의 임종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두달 전 입원 하셨을 때부터 마음 준비를 해드릴까요?  
지난 세월 보은에서 행복하게 지내 온 당신의 삶을  
보아드릴까요?

공동체 식구들과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과 기도 지원을  
받아드릴까요?

6남매를 기주시고, 15 손과 손녀, 4 증손까지 보신  
풍성한 삶을 사셨기 때문일까요?

먼저 가신 당신의 아내, 외할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당신을 생각할 때 슬픔보다는 감사가 있을지 않을까요?

②

아버지,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제가 어릴적 다른 가족들은 부산에 있을 때 아버지와 제가  
한둥이시 시골에서 살 때가 있었지요. 밥과 간식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그때는 꿀맛이었지요. 아버지  
옆에서 라다보면 저의 작은 체구는 아버지 품속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논밭에서 일하시느라 항상  
헌옷을 입고 다니셨지요. 그러나 잔치집에 가시느라  
두루마기를 <sup>입고</sup> 입으시곤 하시곤 하셨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  
지요.

아버지, 당신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교육 때문에 가식을 하나도 다 부산에 보내셨지요.  
그러나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고향에 항상 그리웠어요.  
한번은 부모님 보고싶어서 겨울방학하는 날 밤라 타고  
고향에 갔지요. 춥고 무서운 시골길을 지나 새벽에 도착하고  
보름을 앓아 누워있기도 있었지요. 앓아 누워도 부모님결이  
좋더군요.

아버지는 감홍시 아껴두었다가 상한 것은 아버지 드시고  
깨끗한 것은 저희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손수 두부를

③

만들이 주었지요. 야단칠 일이 있어도 방학 때 만  
있다가 갈 과식들이라 많이 봐 주었지요.  
방학이 끝나고 저희가 떠나는 날이면 아버리는  
첨마루 발에서 일하시며 저희를 바라보곤 하셨지요.  
아버리, 첨마루 발에는 일때 문에 가셨나요,  
저희를 배웅하기 위해 가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아버리의 자식들을 위한 희생, 열심히  
일하시는 근면한 삶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버리는  
친구 분들로 부터 종종 이런 말을 들었지요. "김도영씨는  
자식 봉사 하나는 잘지냈어." 이런말 들을때 아버지  
뿌듯하셨어요? 아버리의 근면한 삶은 보은에 계실  
때도 계속 되었지요. 동찬 다람이의 시가 생각납니다.  
"할아버리 주머니는 보슬 주머니." 저희 아버리를 본말이라  
하지만 반에 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3년전 저희 가족이 한국에 방문했었지요. 잘느멍가가 미리  
계획하고 요청했지요.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 건강할 때  
찾아뵙고, 저희 세라녀에게 할아버리가 누구인지, 뿌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지요. 가장 귀한 시간은 아버리와 함께 한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보은에서 사는날 제가 왜  
아버리 옆에서 자리 앉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④

여러서 아버지 옆에서 매일 라면 놓이 돼 그랬는지,  
이 불로라식을 통해서 주셔서요.

두달전 아버지 입원하시고 제가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주로 의식이 없었지요. 평소에는 잘 못하다가  
의식없는 아버지를 찾아가 말아봐 주기를 바라는 제가  
형치 있었습시다. 그런 저도 마다 앓으시고 두번이나  
눈을 크게 뜨고 말아봐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 저희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지난 10년 잘 견디셨습시다. 보은에서 막내 아들 집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아버지는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했습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남은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마음의 빈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  
습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빈방을 볼 때마다 동찬이네  
가족들은 얼마나 허전 하겠습니까? 식사 때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겠습니까?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자식들은 이제 전화라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더 생기는 아픔과 고통,  
아쉬움과 그리움을 여길 힘이 없군요.

꼭 잊이 저희를 위로하겠습니까?

이시간 저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병원에 계실 때로 하늘나라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거나  
기도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분명하게 "아멘" 하셨지요

어머나도 10년 전 떠나시기 전 믿음을 갖고  
아버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전교한 믿음을 가지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 가정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저희 마음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시간은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아버지의  
삶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편지가신 어머니께서  
지금도시는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나라에서 만나길 소망하며

개나리에서 셋째 아들 삼수 드림

2010년 12월 28일